

트럼프 출범과 세계 통상 변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하는 통상 환경 전망



G2 통상대립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글로벌 통상 리더의 지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통상마찰로 신냉전시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p12

미국 소비시장을 흔드는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부머 인구를 앞지르고, 소비에서도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주류로 발돋움한 밀레니얼 세대의 생활패턴이 시장에 가져 올 혁신적 변화가 궁금하다. >> p20

세계로 뻗어가는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

'잘 하는 것'을 찾아 치열한 화장품 시장에서 단단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주)서울화장품의 경쟁력은 차별화 그리고 FTA였다. >> p24

무역왕의 비밀코드 1380

검색



무역왕의 비밀코드 1380%

무역왕이 될
비밀코드를
찾아라!

이상민 · 김종민 · 장동민 · 박희순 · 전지윤 · 예정화

BUY AMERICA, HIRE AMERICA

p16 커버스토리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 1월 취임했습니다. 그가 취임사에서 지속적으로 외쳤던 ‘미국최우선주의’는 통상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어 구체화되었죠.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 그리고 각국 정부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나는 짧은 뉴욕 여행을 즐긴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흘이다.”

- 제임스카메론(영화감독)

p18 FTA&LIFE ‘대단하다’는 수식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곳,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로 책 한 권쯤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도시, 바로 뉴욕입니다. ‘도시를 흠치다’ 뉴욕 편에서는 미술, 음악, 건축, 공연 등 여러 장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거리 곳곳을 채우는 뉴욕의 매력을 알아봅니다.

부모님은 “그런 데 돈을 써서 집은 언제 사누”라며 핀잔하시지만 데이비드는 지금의 소비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 교외 전원주택에 살면서 싸구려 면도크림이나 쓰는 건 전혀 ‘힙(Hip)’하지 않기 때문이다.

p20 트렌드를 읽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는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성배(Holy Grail)’가 되었을 만큼 미국 소비시장에서 전체 25%를 차지하는 주류가 되었습니다. ‘스몰럭셔리’, ‘의식 있는 소비’ 등 이들의 생활패턴이 시장에 가져온 혁신과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하면 해외직구도 면세 아닌가요?

p36 FTA PRACTICE 흔히 FTA가 적용되면 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에는 관세 외에도 꽤 복잡한 단계를 걸쳐 몇 가지 내국세가 적용됩니다. 직구 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Contents

March 2017 vol.58



표지 사진은 지난 1월 20일 거행된 제44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장면이다. 미국 최우선주의를 기조로 내세우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OVER STORY

미국 최우선주의를 모든 정책 기조로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드디어 취임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글로벌 주요 국가의 반응, 글로벌 통상 리더의 지위를 둘러싼 미중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대책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본다.



FTA BRIEFING

01 이달의 FTA 브리핑

ISUUE FOCUS

- 04 카드뉴스: 글로벌 무역사기유형을 소개합니다
- 06 Global Trade News
- 08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APTA 확대 적용

FTA CARTOON

10 돌카츄의 3분 도시 여행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7년 3월 1일(통권 58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책관실 (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ER STORY

트럼프 출범과 세계 통상 변화

- 12 '아메리카 퍼스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4 G2 통상대립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6 트럼프 취임과 한미 통상정책 방향

FTA & LIFE

- 18 도시를 훑치다: 미국, 뉴욕
- 20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미국 소비시장을 뒤흔들다

FTA WIKI

- 22 FTA 용어사전:
②알쏭달쏭한 메가 FTA 암호 풀기

MEET

- 24 FTA 활용기업 탐방: ㈜서울화장품
- 26 우리 농업인 지원 사례: ②한국과수농협연합회

FTA PRACTICE

- 28 우리나라의 FTA History: ②한·미 FTA
- 30 중국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제품 품질 관련 샘플링 조사 강화
- 32 중국 IP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② Watchdata社 vs Hengbao社 특허권 침해 사건
- 34 FTA 초보자를 위한 기초 활용 노하우: ②수출 FTA 활용 절차
- 36 사례로 배우는 실전 FTA 활용법: 해외직구와 관세 계산법

FTA NEWS

- 38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 및 RCEP 협상

BOARD

- 40 FTA 행사 및 해외 전시 일정 정보 & 독자 알림

글로벌 무역사기유형을 소개합니다

무역사기사례,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라진 240억은 어디에?

L사는 지난해 세계 석유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달 뒤, L사는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이메일과 계좌의 명의를
확인한 뒤 **거래대금 24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240억은 거래처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거래의 돈이 한 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역사기행각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사기 사례 유형이 지능화되고
사기 피해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사기의 몇 가지 유형을 알아볼까요?



먼저 **샘플 사기 유형**입니다.
대량 거래를 미끼로 샘플 테스트가 필요하니
무료 또는 특가로 샘플을 보내달라고 요청 후
물건을 받으면 연락이 두절됩니다.
고가의 제품은 반드시 샘플비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위조 서류나 이메일 해킹 사례입니다.

송금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위조된 가짜 송금
확인서를 보낸 후 입금확인 전에 물건의 선적을
요구하기도 하며, 의도적으로 서류에 하자를 유도해
지급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거래내용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후, 바이어에게
다른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청하는 위조 공문서를
보낸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의 자금이나 프로젝트로 유도해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제품 공급을 의뢰한 후
에이전트 등록비, 변호사 선임비,
서류구입비, 인증비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한 뒤,
송금되면 자취를 감춰버리기도 합니다.

의심해도 됩니다



첫 거래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주문으로 거래를 제시한다?
계약을 서두른다?
평소와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계약에 불필요한 선물이나 비용을 요구한다?
방문을 유도한다?

거래처와의 좋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의심과
확인**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나요.
예외는 없습니다.**



[Sri Lanka-APTA]

스리랑카, FTA 없지만 APTA 통해 특혜시장 접근 가능

2007년 10월부터 10년간 추진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제4라운드 협상이 지난 1월 13일 최종 타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1) 양허품목 확대(4270개 → 1만677개), 2) 특혜폭(MOP: Margin of Preference) 확대로 요약되고, 최근 타결된 협정은 금년 7월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APTA는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 참가하는 일반특혜무역협정으로, 1975년 7월 방콕에서 서명됐고 2006년 9월부터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로 개정되었다.



APT의 중요성

현재 스리랑카는 인도,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최근 중국, 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FTA 관계는 없는 상태다. 참고로, 인도는 ASEAN, 일본, 한국 등과 다양한 FTA, CEPA 등을 통해서 특혜시장 접근을 하고 있고, 서남아 2대 시장인 파키스탄도 중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유럽 시장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국가들인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은 최빈개발도상 참가국(LDC) 자격으로 수출의 84%를 무관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는 APTA를 체결함으로써 최대 시장인 중국, 특히 최근 들어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과 특혜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스리랑카와는 FTA가 없는 상태에서 APTA를 통해 특혜시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는 APTA 국가와의 교역이 의미 있게 증가했는데, APTA 국가로의 수출이 2010년 기준 연간 6446만 달러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연간 1억 1353만 달러에 달했다.

스리랑카의 新무역정책

스리랑카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량의 반 이상이 지나가는 인도양 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중국과는 실크로드, 일대일로 정책 등으로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특히 인도와는 인접 시장으로서 오히려 스리랑카에서 인도 시장으로의 접근이 인도 내 지역 간 접근보다도 효율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콜롬보 항구를 글로벌 물류 허브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밸류 체인에 있어 서남아 지역에서의 제조, 유통, 물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도 더 이상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인도·파키스탄과는 현 FTA를 심화시키고, 중국·싱가포르와는 새로운 FTA 체결을 추진하며, 한국과는 APTA를 통해서 새로운 특혜시장 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부채 중심의 경제개발에서 탈피, 수출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FDI를 유치해 민간 주도의 수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경제 개발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APT 협정문 활용법

APT 협정에서 제시하는 양허세율은 MOP(Margin of Preference)이다. MOP는 '특혜폭'으로서 동종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율(MFN)과 특혜 관세율 간 절대적 차이가 아닌 백분율 차이를 의미, MOP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혜택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LDC에 대해 특별양허(Special Concession)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번 협정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해서는 특별양허 제공한다. 원산지 입증은 1) APTA 협정문 제8조, 2) 동 협정 부속서(Annex II)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월에 타결된 양허세율은 UNESCAP(APTA 사무국) 웹사이트(www.unescap.org/content/apta-ntm/)에서 확인 가능하다.(단, 향후 변동 가능성 있음)☞



[EU]

영수증부터 식품용기까지 2020년부터 유럽 내, BPS 비상

지난 2016년 12월 12일, EU 집행위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Thermal paper) 내 비스페놀 A(이하 BPA) 함유량을 중량의 0.2%로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약 3년 후인 2020년 1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스페놀 A 물질은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BPA의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BPA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들은 BPA가 내분비 교란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식도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유방암 및 뇌종양, 비만, 갑상선 호르몬 분비 교란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 신규 기준에 맞춰 제품 생산해야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감열지 내 BPA 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제품들은 2020년부터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신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한편,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는 감열지 내 BPA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AC에 따르면, BPS 역시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PS 물질이 BPA를 대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향후 제조기업들의 BPS 사용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 내 BPA 물질에 대한 금지 움직임 확산 추세

EU의 경우, 2011년부터 EU 내 BPA가 함유된 유아용 젖병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5년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BPA의 일일허용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을 50µg/kg/bw/day에서 4µg/kg/bw/day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젖병뿐 아니라 모든 식품 용기에 이 물질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2016년 10월 6일 식품접촉용기 물질의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559표, 반대 31표, 기권 2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 채택안에서 현재 식품접촉용기 내 BPA 허용기준(0.05mg/kg)은 여전히 소비자들, 특히 태아와 유아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EFSA에서 2017년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현재 EU 내 총 17개의 식품접촉물질이 등록돼 있으나, 이 중 4개 물질만 EU 차원의 안전평가기준이 마련돼 있고, 나머지 13개 물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기준이 통일화돼 있지 않다. 이에, EU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EU에서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BPA 물질 외에도, 향후 식품접촉용기에 사용되는 여타 화학물질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식품용기를 생산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EU 움직임을 주시해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리 박주연 기자 | 자료 KOTRA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APTA 확대 적용

APTA에서도 원산지 증명서 원본 없이 전자 자료로 가능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 증명서(이하 CO)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PTA 회원국 간이 아니라, 한중 양국 간만의 운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 박주연 기자



전자 자료와 신고 내역 달라도 정정할 수 있어

지난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2016년 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8일부터 APTA CO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루어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2.8~5.10) 중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CO 제출이 생략된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일정에 맞춰 전면시행 할 예

정으로 중국 내 시범운영 기간 동안 CO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 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재전송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 내 APTA 협정 적용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및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게 된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CO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 및 통관·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기준 한중 간 APTA CO 발급 건은 약 46,000건으로, 전체 대중국 CO 발급 건 중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200여 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대비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FTA 활용지도 제작
2016년 FTA 효과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관세청은 FTA 발효국(52개국)과의 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무역환경에서 기업들의 FTA 활용 현황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FTA 활용지도는 협정별·산업별 FTA 활용률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자체별 활용률을 새롭게 추가하여 크게 3개 주제로 구성되었고, FTA 특혜대상금액과 FTA 활용금액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2016년 수출활용률은 72.2%로 전년대비 0.3%p, 수입활용률은 73.1%로 전년대비 2.9%p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계류(73.3%)와 플라스틱고무(64.7%)제품이 높고 지역별 수출활용률은 FTA 특혜품목의 생산 비중이 큰 인천(84.7%), 전남(84.6%), 광주(82.2%)가 높고, 수입활용률은 충북(85.7%), 대구(84.6%) 순으로, 반도체·산업 기계류의 원부자재 수요가 높은 내륙 지역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FTA 활용지도는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제공되며, 분기별로 갱신될 예정이다.☺



〈2017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발간
수출입통관 필독서로 2017 HSK 개정 내용 모두 반영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수출입통관 업무 담당자의 필독서로 꼽히는 〈2017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발간했다. 수출입통관편람은 4,500페이지 분량의 관세·무역 전문도서로, 개발원은 1964년 설립부터 쌓아온 HS 분류체계에 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년 해당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협정세율 중 자사에 유리한 세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법령과 수입제세 부과 대상 및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수출입통관편람은 품목별 FTA 협정세율, 내국세, 수출입·통합공고, 긴급·할당관세, 기관별 추천요령 등 수출입요령을 총망라하고 있어 이러한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올해도 독자의 요청을 반영해 상·하권으로 나눠 발간했으며, 상권에는 ▲품목별 관세율 및 수출입 규제 근거법률, 하권에는 ▲탄력관세·특수관세·간이정액환급, ▲수출입·통합공고, ▲세관장확인증·원산지표시대상 등을 수록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세계 무역환경 및 기술의 진보 등에 따른 교역상품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4~5년 주기로 HS 코드를 개정하는데, 이번 편람에는 2017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특히 10단위 품목 수 기준으로 2015년 대비 855개 물품이 삭제되고 844개 물품이 신설됨에 따라 예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수출입통관편람이 성공적인 수출입통관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 〈2017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은 커스트라 홈페이지(www.custr.com) 또는 주요 온라인 도서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416-5120~2, 4)로 문의하면 된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3분 여행



트럼프 출범과 세계 통상 변화

‘아메리카 퍼스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G2 통상대립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트럼프 취임과 한미 통상정책 방향



‘아메리카 퍼스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드디어 취임했다. 그가 취임사에서 지속적으로 외쳤던 ‘미국 최우선주의’는 통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어 구체화되었다.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을 파악한 각국의 정부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 중이다.

미국 최우선주의 슬로건, Buy America, Hire America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다른 국가가 가져간 미국인의 기회를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발언하며 모든 정책에서 보호주의, 애국심 강조, 국방 및 무역에서 미국인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물품 구입 장려,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조했으며 특히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들여올 것을 명령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미국 우선주의’로 이뤄질 것입니다. 무역, 세금, 이민, 대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미국 노동자, 미국 가정을 위해 이뤄질 것입니다.(From this moment on, it’s going to be America First. Every decision on trade, 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_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사 중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SNS를 통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지 말고, 미국 내에 투자하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자동차 제조회사를 향해 직접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 내 모든 송유관 공사에서 가능한 미국 내에서 제조된 장비와 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행정명령 상 미국산 철강은 전 제조과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철강에 한정된다고 밝히며 해외에서 일부라도 이루어진 철강은 미국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결국, TPP 탈퇴 서명 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TPP를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통과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당선 후 발표한 100일 계획에서 TPP 탈퇴를 재 강조했고, 취임 3일 후 TPP 탈퇴 선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TPP를 폐기할 것과 미국을 영구적으로 TPP협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필요에 따라 양자무역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국을 재건하다, 인프라 사업 추진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내 낙후한 공공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도로, 항만, 교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미국의 전국 주지사 연합이 총 43개주에서 받은 인프라 프로젝트 ‘위시리스트’를 바탕으로 1,375억 달러 규모의 50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리스트를 작성했다. 프로젝트 선정 기준은 공공 안전과 관련한 시급성, 계획 및 설계 등 공사를 위한 초기 준비작업 최소 30% 완료, 미국 제조업 부양 기여도 등이었다.☺

글 김선녀 기자

+ 트럼프 통상 정책에 대한 주요국 반응 +

● 일본 미국과의 동맹 여전히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게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 통상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일 경제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미 신정부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하겠다.”

미일 동맹이 흔들리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맹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대처를 준비함과 동시에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동맹 강화 유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의 TPP 탈퇴 결정 후에는 일본은 TPP 대책본부를 개편하여, 통상 교섭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며 자동차에 관한 일미 협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 중국 무역 전쟁에 대비

“보호주의에 맞설 준비되어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장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정하고,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과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중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RCEP 등 메가 FTA 협상을 가속화시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독일 아직은, 타협과 존중 강조

“규칙을 토대로 하고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공동의 작업이 있다면 모두에게 최상일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질서에도 해당한다.”

독일 정부는 트럼프 집권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대체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독일의 수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 독일 완성차 기업에 대한 관세 부가 위협에 대해 주요 미 진출 대기업은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멕시코 2017 경제 전망 가장 호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세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 후 비용을 멕시코 정부에 청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혹은 폐기, 불법이민자 및 해외송금 규제 등 트럼프의 대멕시코 관련 주요 공약은 통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중요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폐소화 가치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통상정책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멕시코 교역에 치명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러시아, 국제적 피해 거의 없을 듯

“전반적인 시장 반응 긍정적이다”

친러시아 성향을 보여 온 트럼프 정권의 출범으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완화 혹은 중단 될 경우, 위축되었던 러시아의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 국제적 요소보다는 열악한 내부의 경제적 구조 영향이 큰 만큼 러시아 경기 완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브라질 트럼프 출범으로 오히려 기회 얻어

“미국이 TPP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캐나다 등 태평양 국가들과 통상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

브라질의 경우 지역 간 및 개별 무역협상 확대, 무역기회 확대 등으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돼 있는 메르코수르·EU 간 자유무역협상을 비롯해 지역 간 협상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NAFTA 재협상으로 멕시코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멕시코가 브라질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KOTRA

글로벌 통상 리더 자리를 두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가 치열하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개막한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한국경제신문

G2 통상대립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어져 온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유지해 나아가려는 미국에 맞서 본격적인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의 막을 올리려는 중국 앞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상대가 나타났다. 그 주인공은 바로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양국은 외교와 안보 등 지역패권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제통상 분야에서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냉전시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것은 지난 1월 20일. 이제 막 한 달을 넘긴 시점이다. 취임 후 거침없는 행정명령의 발동을 통해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던 자신의 공약들을 하나, 둘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NAFTA 재협상 천명과 TPP 탈퇴 등 통상 현안들로, 이른바 자유무역에서 미국의 탈선(脫線)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글로벌 통상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신에 보다 미국 중심으로 통상 규범과 네트워크를 개편하고, 취임 전 자신이 내세운 통상 공약 7가지 중 세 차례나 겨냥했던 중국(본지 2016년 12월호 참고)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심산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비슷한 시기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 향후 미국 대신 중국이 새로운 자유무역 선구자로 역할 할 수 있음을 피력, 맞불을 놔다. 미·중 통상마찰의 냉전시대가 초래됨에 따라 과거 양국 간 통상 분쟁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미·중 통상분쟁 잔혹사 상(上):

중국의 WTO가입 이전(~2001)

중국의 제2차 국공내전(國共內戰, 1946~1950년) 당시 미국이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을 지원, 지지하며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미·중 간 관계는 1979년 1월 1일 미국이 의회에서 타이완 관계법을 채택, 4월에 서명함으로써 보다 노골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미국이 타이완에 대하여 방어적 목적의 무기는 판매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해놓고 있었으며, 실제 80년대 초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정부가 타이완에 최신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통상적 결정으로 미·중 관계에 불을 지폈다. 82년 중국과 미국 간 공동성명(일명 ‘8·17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 추가적 마찰은 피했으나 현재의 G2 대립구도의 시발점에 통상 관련 계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새삼 흥미롭다.

미·중 간 야기되었던 최혜국대우(MFN) 논란도 재미있다. 앞서 말한 국공내전, 대만과의 분리로 GATT의 1947년 원년멤버 지위에서 한 순간에 비서명국으로 좌천된 중국은 1979년 미국과 수교한 이후, 줄곧 양국 간 무역협정을 통해 최혜국대우를 부여받아왔다. 가뜰이나 GATT에서의 이탈도 뼈아픈데 더욱 굴욕적인 것은 매년 미국의회 승인을 통해 최혜국대우를 ‘갱신’해나가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늘 문제 삼아 최혜국대우 박탈을 거론하며 위협했으니 중국의 입장에서선 여간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미·중 통상마찰은 최근 몇 년간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이 탄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미·중 통상분쟁 잔혹사 하(下):

중국의 WTO가입 이후(2001~)

2001년 중국과 대만이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나란히 WTO에 가입한 것은 꽤나 잘 알려진 역사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절대 불가능했을 양국의 공동가입은 독

자적 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에 대해서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GATT(GATT 제33조) 및 WTO(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2조)이기에 가능했던 장면이다. 중국이 WTO 가입 노력을 벌이던 1990년대에도 역시 미국이 제동을 건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미국은 중국의 인권과 대만 문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중국의 WTO 가입 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1999년 11월 양국의 대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살린 바셰프스키 대표와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스광성 부장 – 가 합의함에 따라 2년 뒤인 2001년에야 비로소 중국의 WTO가입 및 국제통상체제로의 재(再)편입은 실현될 수 있었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엔 양국 간 통상마찰이 보다 합법적인 체제 하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이후 총 15건의 통상 분쟁 제소와 39건의 피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중 미국 대상 제소가 10건(약 67%), 미국으로 인한 피소가 21건(약 54%)이다. 특히 최근에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되는 미·중 통상 분쟁 사례가 더 잦아지는 추세다. 실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7개월간 다섯 건의 분쟁이 회부되었으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미·중 통상 분쟁이 공식 발생한 셈이다.

양국은 그 외에도 지난 15년간 유지되어온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NME)를 둘러싸고도 여전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국가로 인식, 15년 뒤인 2016년 말 시장경제지위(MES)를 획득하여 각종 통상압력에서 보다 자유로워지길 기대했지만 기한이 지난 최근까지도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향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글로벌 통상 지위를 건 경쟁, 이제 시작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 앞서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가짐으로써 향후 미·중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취임 이후에는 다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했다. 그러더니 다시금 일본 아베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는 중·일 갈등의 산물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지지했다. 갈피를 잡기 힘든 미국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미·중 통상 마찰은 확실히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논란은 여전하고 미국의 TPP 탈퇴로 불붙은 글로벌 통상 리더 지위를 건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일자리 카우보이로서 이념 보다 실리를 추구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사에서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최우선을 바탕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을 펼치겠다고 공언하는 트럼프는 과거와는 다른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탈퇴, 제조업의 미국회귀 촉구를 위한 국경조정세 도입, 무역불균형의 조정을 주장해 왔던 트럼프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이자 투자가인 월버 로스(79세)를 상무장관에 임명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로스는 15년여간 미·중 통상관계에 관한 여러 권의 서적을 집필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판해 왔다. 그리고 신설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겸 대통령 보좌관에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Death by China)’의 저자로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빈번하게 비판해 왔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피터 나바로 교수를 임명했다. 이 두 사람은 “한·미 FTA로 미국의 일자리 7만 5000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무역위원회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여 해외로 향한 고용을 회귀시키고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통상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올해 초에는 레이건 행정부 때 무역대표부의 부대표를 지냈으며 중국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시저 변호사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임명했다. 이들 3인 모두 대중 강경론자들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USTR이 중심이 되어 무역협정의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상무부는 반덤핑관세나 저렴한 수입품의 보조금을 둘러싼 조사 등을 담

당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에 고용을 늘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통상정책 입안과 대책에 대한 권한을 백악관과 상무부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맺은 신사협정에 의거해, 의회가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무역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항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무역정책의 최종승인은 의회가 행한다.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대중 무역적자이기 때문에, 통상법 301조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구사해 중국을 압박하고 2국간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여 수정해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설계팀은 레이건 시대의 통상법 301조 및 슈퍼 301조로 대일 제재를 행했던 경험을 되살려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그리고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35%까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도 같은 공격을 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 치명타 입을 수 있어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지난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2배가 넘는 약 85%에 이른다. 특히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온 제품들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중간재나 부품의 제조업체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수입 물가는 상승해 실질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미국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무역정책을 도입하면,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경작된 대두가 중국으로 약 105억 달러가 수출되고 있음을 본다면, 중국에서 이 수입품에 대해 무역보복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경제는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월에 미국이 중국산 대형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미국산 동물사료 원료에 대한 53.7%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맞대응 했다. 한편 EU는 미국에서 수입물품·서비스 등에 약 20% 세금을 더 물리고 수출품은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세제는 WTO의 근본 원칙에 위배하므로 도입되면 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WTO에서 질 경우 연간 385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호무역주의 과연 원원일까

과거의 힘든 경험을 돌이켜 보자.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모든 공업국들은 수입을 줄이기 위해 보호 무역 수단을 강구했다. 1929년에 시작한 대공황으로 세계의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주의로 치우쳤다. 관세인상, 환율인하라는 ‘근린공평화 정책’이었다. 예컨대 1930년에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과세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52%만큼 인상시키는 스무트-홀리 관세를 승인했다. 무역을 발전시켰어야만 했던 시기에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의 성장을 더욱 가로막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수입 감소와 수출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더욱더 축소해 수출선이 사라지고, 각국의 국내생산도 줄어들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이것을



한국경제신문

미국이 과거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불확실과 예측불능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중국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다. 자국에서 만든 상품의 시장을 구했던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초강대국의 지도자에게서 전후 70여 년 간 쌓아 온 개방적인 시장을 수호하는 세계 무역체제를 파괴하려는 언동은 생각하기 힘들다.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미국 산업은 결코 강해지지 않는다. 수출의 약 80%를 미국에 의존하는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한 전략은 멕시코 폐소화의 가치를 더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멕시코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8일에 1달러가 18,322페소였는데, 올해 1월 중순에는 22페소까지 약 20% 절하됐다. 그리고 고용은 단기적으로 지켜질지 모르나,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통일성과 안정성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는 것은 1930년대 세계경제의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과거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불확실과 예측불능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출범 초기에는 우리에게 최악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앞에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투자계획을 연달아 내놓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향후 5년간 31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미국 기업과 손잡고 현지화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이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글 박명섭(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한국무역학회 고문)

지상에서 가장 큰 패치워크, 그곳에선 눈 뜨고 마음을 베인다

“나는 짧은 뉴욕 여행을 즐긴다.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흘이다.”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말했다.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후회스럽다. 비록 쇠퇴하고 있고 먼지투성이지만 항상 무언가 일어나는 곳이다.” 가수 존 레논이 투덜거렸다. “뉴욕에선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조차 없다. 뉴욕은 당신을 계속 흥미롭게 해준다.” 영화배우 매트 딜런의 말이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찬사로 책 한 권을 채울 수도 있다. 뉴욕은 단지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곳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 문화의 패권은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미국의 특별한 장점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등 지역 도시마다 제각각의 색채가 강하다는 점이다. 수사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가 뉴욕,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여러 도시를 배경으로 독자적인 시리즈를 만들어가고, 그것들의 개성이 사뭇 다르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 독특한 장점들이 결국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다. 누구든 자기 분야의 최고를 꿈꾼다면 찾아가는 도시, 자유의 여신상이 햇불을 들고 있는 뉴욕 향이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면 미국의 작가가 1920년대의 파리를 흠모하며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의 세계 문화 수도는 파리였다. 미국의 헤밍웨이도 스페인의 피카소도 모두 파리로 갔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쟁의 광풍과 나치의 억압을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의 예술가들이 뉴욕에 터



전쟁의 광풍과 나치의 억압을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유럽의 예술가들이 뉴욕에 터전을 잡고 새로운 문화 도시를 건설했고, 이때 이후 뉴욕은 미술, 음악, 건축, 공연 등 여러 장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장했다.

전을 잡고 새로운 문화 도시를 건설했던 것이다. 이때 이후 뉴욕은 미술, 음악, 건축, 공연 등 여러 장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장했다.

근사한 재즈를 키워낸 도시

초창기 뉴욕 문화의 일등공신이라면 아무래도 재즈 음악을 꼽아야 하겠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리듬감과 유럽 여러 민족의 음악이 뒤섞인 음악, 재즈는 미대륙 남쪽의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와 시카고에서 한번 융성했고, 다시 철도를 타고 동쪽으로 와서 뉴욕에서 만개했다. 1920년대를 재즈시대라고 하는데 금주법 하에 오히려 유흥 문화가 만개했던 때다. 소설과 영화로 잘 알려진 <위대한 개츠비>의 화려한 재즈 파티가 벌어지던 무대가 바로 뉴욕이다. 이어 1950년대에는 ‘비밥’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재즈를 만들어 냈고 오늘날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키워낸 곳도 바로 이 도시다. 뉴욕에서 재즈를 즐기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재즈 공연을 오케스트라의 형태로 만나고 싶다면 링컨 센터(Lincoln Center)의 공연 목록을 찾아보면 된다. 보다 자유롭게 즉흥적인 공연을 즐기고 싶다면 할렘 남쪽에 있는 레녹스 라운지(Lenox Lounge)를 찾아가 보라.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이 밤을 지새우며 새로운 재즈를 발명해낸 곳이다. 사실 여러 공연, 박물관, 레스토랑, 지하철 역사에서도 언제든지 수준급의 연주자들을 만날 수 있다. 뉴욕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좌석에 단정히 앉아 있는 경우는 잘 없다. 언제든 리듬을 느끼면 어깨와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출 자세가 되어 있다. 이 도시에서 뮤지컬, 발레, 현대무용 등 음악과 춤을 결합한 공연이 만개한 것도 당연한 일로 보인다. 특히 뮤지컬의 대명사가 된 브로드웨이 여러 극장들의 역할이 컸다. <왕과 나> <남태평양>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의 오래된 황금기에서부터 <시카고> <라이언 킹> <위키드>로 이어지는 뮤지컬 역사의 화려한 목록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영국의 뮤지컬보다 춤이라는 요소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발전시켜온 것도 특징이다.



1950년대에는 비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재즈를 만들어냈고 오늘날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키워낸 곳도 바로 뉴욕이다.



뉴욕에는 여러 인종들이 제각각의 개성을 숨기지 않고 서로 뒤섞여 있다. 로어 이스트사이드는 유대인 지역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들어와 살았던 지역이고, 중심가인 소호 근처에는 작지만 특 튀는 차이나타운이 있다.

세계를 축소시킨 블록 게임

미술 애호가들에게도 뉴욕은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버킷 리스트다. 센트럴 파크 동쪽의 대로를 뮤지엄 마일(Museum Mile)이라고 부르는데,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무제오 델 바리오, 뉴 갤러리 등의 쟁쟁한 미술관들이 도열해 있다. 매년 6월에는 대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을 연다. 미술관과 길거리를 오가는 거대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도로 바닥에 색색의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수준에 놀라게 된다. 모마(MOMA), 그리고 첼시의 작은 갤러리들은 보다 현대적인 미술을 만나기 좋은 곳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군락이 이루어진 부쉬윅에서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된다. 흔히들 뉴욕을 두고 ‘인종의 용광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인종의 패치워크’라고 부르고 싶다. 기독교인, 유대인, 흑인, 아시아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여러 인종들이 제각각의 개성을 숨기지 않고 서로 뒤섞여 있다. 센트럴파크 북쪽의 할렘은 흑인들만의 역사가 이어져왔고, 그 동남쪽의 이스트 할렘에는 라틴 이민자들의 흥겨운 문화가 있다. 로어 이스트사이드는 유대인 지역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들어와 살았던 지역이고, 중심가인 소호 근처에는 작지만 특 튀는 차이나타운이 있다. 주말마다 여딘 가에서는 블록 파티가 열리고, 지구의 다른 곳을 통째로 옮겨온 듯 한 독특한 문화를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다.

‘2천 년대의 뉴욕을 대표하는 한 장면’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가?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멋지게 차려 입은 캐리와 친구들이 쇼펍백을 들고 발랄하게 마천루 사이를 걸어 다니는 <섹스 앤 더 시티>의 주 무대가 된 5번가는 명품 쇼펍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무대가 되었던 보석 가게 티파니도 있고, 미국의 새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살았던 주상 복합 빌딩 트럼프 타워도 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가 이곳 아파트를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센트럴 파크를 비롯해 뉴욕 전체를 360도의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뉴욕은 세계를 축소시킨 블록 게임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인종이 뛰어놀고, 모든 예술이 뿜을 내고, 모든 취향이 모여 있다. 미국이 만들어낸 가장 눈부신 것들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만나러 지구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몸을 부비고 있다. 뉴욕은 어지럽다. 그러나 약간의 멀미를 감수해도 좋을 만큼 매력적이다.☺

트렌드를 읽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미국 소비시장을 뒤흔들다

세대, 성별, 소득 등에 따른 인구 통계적 세분화(Demographic Segmentation) 기법은 소비시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는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성배(Holy Grail)’가 된지 오래다. 밀레니얼은 드디어 2015년을 기점으로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 인구를 앞질렀고, 소비에서도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주류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 자체보다 그들의 생활패턴이 시장에 가져 올 혁신적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



스몰럭셔리(Small Luxury)

데이비드는 워싱턴 도심의 작은 월세 아파트에 산다. 부모님은 널찍한 잔디밭이 딸린 전원주택과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데이비드에게는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바로 밀레니얼이다. 큰 집, 좋은 차는 언감생심이지만 ‘작은 사치(small luxury)’를 통해 느끼는 소소한 만족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데이비드는 한 장에 70달러나 하는 타미 존(Tommy John) 속옷을 입고 있다. 안 입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 본 사람은 없다는 이른바 ‘잇 아이템’이다. 첨단 소재와 인체공학으로 제작되어 기능성과 편안함을 모두 잡은 테크놀로지 언더웨어를 표방한다. 미니멀한 디자인, 세련된 색상과 멋진 로고가 홀로그램 처리된 허리 밴드까지, 입을 때마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또한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루밍족’답게 더 아트 오브 셰이빙(The Art of Shaving)의 면도 키트를 애용한다. 면도 크림, 에프터셰이브, 오일 등을 포함한 세트가 120달러로 제법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매일 아침의 상쾌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보상받는 느낌이다.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매장에 설치된 럭셔리 이발소 의자에 앉아 면도와 피부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부모님은 “그런 데 돈을

써서 집은 언제 사누.”라며 핀잔하시지만 데이비드는 지금의 소비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 교외 전원주택에 살면서 싸구려 면도크림이나 쓰는 건 전혀 ‘힙(Hip)’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 있는 소비(Conscious Consumption)

제니퍼는 어린 딸아이를 둔 신세대 주부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과 맞벌이로 제법 고소득층에 속한다. 하지만 과거의 무분별하고 의식 없는 소비야말로 지금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건강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고 믿는다. 그녀는 먹고, 입고, 소비하는 모든 것에 소비자의 가치관이 담겨야 하며, 이러한 사소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딸아이의 패딩점퍼를 사기 위해 한참 동안 인터넷을 서핑한 결과 세이브 더 덕(Save the Duck) 브랜드를 선택했다. 한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패딩 한 벌을 만드는데 최소 20마리 거위가 산채로 털을 뽑히는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 세이브 더 덕은 거위나 오리털 대신 첨단 인공 소재를 사용하여 가볍고 따뜻하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모든 소재가 애니멀 프리(animal free)로 만들어졌지만 여느 고가의 패딩에 비해 기능이나 디자인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다가오는 남편 생일에는 자연 원목을 조각해서 만든 위우드(WeWood) 손목시계를 선물할 생각이다. 제조공정에서 100% 무독성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 제품일 뿐만 아니라 시계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나무 한그루를 기부하는 캠페인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이탈리아 장인의 수제품이라니 디자인이나 견고함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¹ ‘힙’하다 세련되고 현대적이라는 영어식 은어로 엉덩이라는 의미의 힙(Hip)에 ‘하다’를 붙여 ‘쿨하다’보다 더 쿨한 사람 혹은 상황을 일컫는다.

✦ 한눈에 보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

홈페이지 이미지	제품명	특징	시사점
	Tommy John (www.tommyjohn.com)	첨단 소재와 인체공학 디자인 테크놀로지 언더웨어	젊은 소비층을 타겟으로 한 고가 브랜드 마케팅 주효
	The Art of Shaving (www.theartofshaving.com)	이발과 면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명품 셰이빙 제품	명확한 타겟 소비자와 브랜드 차별화전략을 통해 틈새시장 진출
	Save The Duck (www.savetheduckusa.com)	첨단 비동물성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패딩웨어	윤리적 소비, 동물보호 등을 모토로 시장 개척에 성공
	WeWood (www.us.we-wood.com)	자연원목으로 제작한 디자인 명품 시계	100% 친환경 제작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병행하여 이미지 제고
	Trunk Club (www.trunkclub.com)	고객취향을 반영한 회원제 의류 판매	고객의 취향, 가격, 주기별 맞춤 쇼핑 제공
	Birchbox (www.birchbox.com)	회원제 화장품 샘플 판매	자신에게 꼭 맞는 다양한 화장품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인기
	hiku (http://hiku.us)	생필품 주문 편의를 위한 제품/소프트웨어	바쁜 현대인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시간절약과 편의성 제고

회원제 맞춤 제품·서비스 배달

결혼 8년 차인 잭과 메리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 맞벌이 부부, 소위 딥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다. 둘 모두 주중에는 일에 쫓기고, 주말에는 포기할 수 없는 취미를 즐기느라 쇼핑할 시간이 늘 부족하다. 자신의 취향과 구매 사이클에 맞춰 누군가 대신 쇼핑해 줄 수 없을까? 메리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위해서 트렁크 클럽(Trunk Club)을 애용한다. 트렁크 클럽의 스타일리스트는 고객과 유무선 상담으로 패션 취향, 사이즈, 가격대 등을 상세히 파악한 뒤 시즌별로 셔츠, 바지, 양말, 구두까지 코디한 의상을 배송해 준다. 시간과 돈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스타일 있는 남편을 볼 때면 흐뭇하기만 하다. 메리도 온라인 회원제로 운영되는 버치박스(Birchbox)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다. 한 달에 10달러만 내면 소비자의 피부톤과 취향을 고려한 화장품 샘플이 가정으로 배송된다. 자신에게 꼭 맞는 다양한 화장품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또

한 화장지, 우유, 세제 등 생필품을 구매할 때는 히쿠(Hiku)를 사용한다. 손바닥 1/3 크기의 히쿠 단말기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주문이 전송되고 즉시 제품이 집으로 배송된다.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쇼핑에 나서는 불편함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어 메리는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사용을 권하고 있다. 전 세계 소비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은 첨단기술, 마케팅 기법,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전 세계 기업들의 경쟁에 힘입어 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스몰 럭셔리’, ‘의식 있는 소비’, ‘회원제 맞춤’ 등과 같은 밀레니얼 특유의 소비 패턴이 시장 변화의 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소문나지 않고는 못 배기는 ‘SNS 네이티브’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전 세대에 비할 바 아니다. 이제 우리기업들도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취향저격에 직접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글 이정민(KOTRA 워싱턴무역관)

어려운 무역기사 쉽게 읽는 법

② 알쏭달쏭한 메가 FTA 암호 풀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국제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면서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2017.02.14, 이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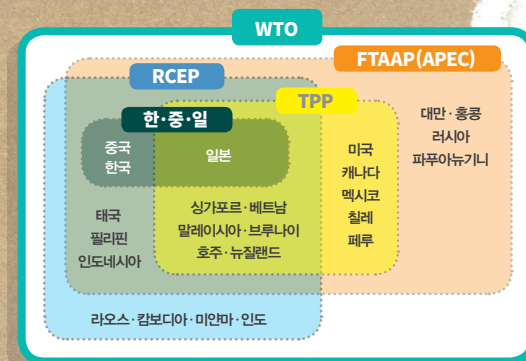
메가 FTA란?

두 나라 간의 양자협상이 아닌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이다.

기존의 FTA에 ‘크다’는 뜻의 메가(Mega)라는 접두어를 더한 경제 신조어로 국제 통상의 새로운 양상 중 하나다.

기존 양자 FTA는 효과가 제한적인 데 반해 메가 FTA는 가입국의 숫자와 지리학적,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입국 모두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영향을 끼친다.

✦ 메가 FTA 노선도 ✦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FTAAP 아·태자유무역지대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 간에 진행 중인 대표적인 메가 FTA 중 하나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고, 이후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가 추가로 참여해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협정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협정으로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TPP 탈퇴 선언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②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12년 11월 16개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RCEP 협상 체결 시 인구 34억 명,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며, 이것은 유럽연합(17조 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다. TPP가 미국 주도의 메가 FTA였다면, RCEP은 TPP를 견제한 중국이 주도한 아태지역 다자간 협상이다. 미국의 TPP탈퇴 선언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RCEP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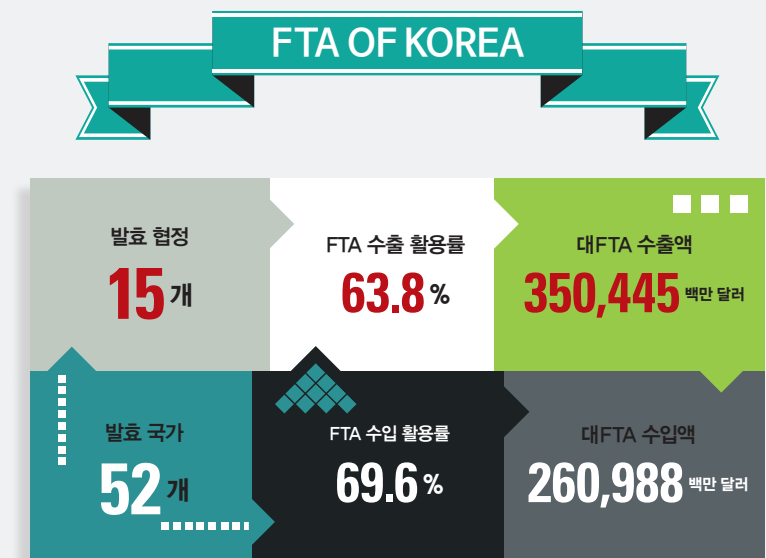
③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무역연합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최종 목표이다. 2006년 APEC 정상회의 때 중국의 제안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미국 위주의 무역 판도를 중국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 중의 하나였다. TPP 중심 우선 추진으로 한때 좌초될 위기에 놓였지만 미국의 TPP 탈퇴로 상황이 바뀌면서 중국은 FTAAP 구축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FTAAP가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른다. ☹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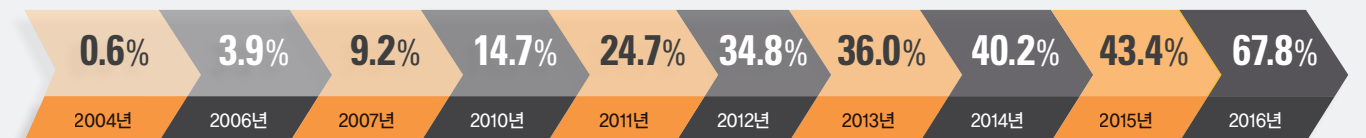
- APEC**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
 (APEC 21개 참여국은
 위의 표 참조)

FTA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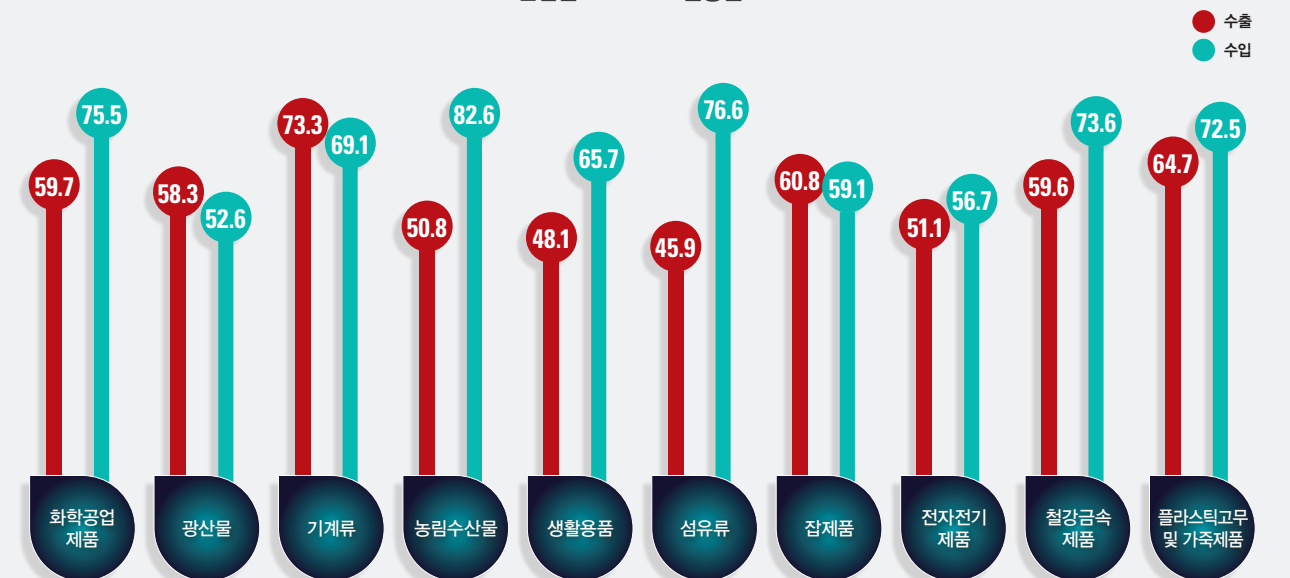
* 2016년 12월 기준

✦ 전체교역대비 FTA 교역비중 ✦



* 2015년 교역에는 2015. 12. 20 발효된 중국·뉴질랜드는 반영하지 않음

✦ 산업별 2016 FTA 활용률 ✦



*본 수치 및 자료는 관세청에서 발행한 <한눈에 보는 2016 FTA 활용지도>를 참조했습니다.

2016년 FTA 활용 현황을 보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2016 FTA 활용지도>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들어가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서울화장품 사옥에서는 연구 및 개발부터 제작, 포장을 담당하는 150여 명의 직원들이 최고의 품질을 갖춘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잘 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한류를 타고 중국, 일본, 동남아를 넘어 중동과 미주, 남미까지 뚫어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메이드 인 코리아 코스메틱'의 전성기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화장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서울화장품은 서울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 김선녀 기자 | 사진 장현성 기자

한국 화장품의 전성기

국내 화장품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원브랜드숍이 태동하면서부터였다. 원브랜드숍은 자사 브랜드 하나만을 취급하며, 중저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로드숍 형태의 화장품 판매점이다. 초창기 원브랜드숍으로 이름을 날렸던 미샤,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등은 이전과 달리 제품 생산은 OEM/ODM 전문 업체에 맡기고, 브랜드 이미지, 제품 디자인, 마케팅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이후 국내 화장품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가 지겨워진 소비자들에게 대안으로 떠오른 멀티형 매장의 출현이었다. 서양의 드러그스토어를 모델로 한 멀티뷰티숍은 다양한 브랜드를 편집숍 형태로 판매한다. 단순히 화장품을 넘어서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해당하는 물품을 파는 멀티숍은 쇼핑 이상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변화의 컨베이어트 벨트에 올라타다

그 사이 진입장벽이 낮은 원브랜드샵을 비롯해 많은 신생 회사들이 성장했고, 기존 국내 화장품 기업의 경우 급변하는 화장품 시장에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지가 기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 1978년, 미용실 파마약과 염모제 전문기업으로 시작한 ㈜서

울화장품은 1980년대 초반 '미모나라라'라는 국내 최초의 에어졸 헤어스프레이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꾸준히 미용관련 자체 브랜드를 개발, 제작해오다 한국 화장품의 급변기인 2000년대를 맞았다. 2002년 ㈜서울화장품은 부천에서 2,000평 부지의 인천 남동공단으로 사옥을 옮기면서 생산 규모를 키웠고, 원브랜드숍을 대상으로 하는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¹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서울화장품은 초창기 원브랜드숍을 이끌었던 미샤, 더페이스숍을 비롯해 LG생활건강과 네이처리퍼블릭 등 1,600여개 달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개발, 생산해오고 있다. 2014년 국내는 물론 한국에 여행온 수많은 중국 및 동남아 여성들의 필수 쇼핑 아이템었던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수딩'이란 제품도 서울화장품의 작품이었다. 결국 2002년 100억 가량이었던 매출액은 2016년 600억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다.

새로운 제품 개발을 무기로 해외로

㈜서울화장품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였다. 한류로 한국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 먼저 회사를 찾아왔다. 이후 다양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

며 홍콩, 일본, 미국, 그리고 태국을 비롯한 다양한 동남아 국가에도 제품을 수출했다. ㈜서울화장품은 자사브랜드 제품 수출 외에도 해외 기업과 OEM/ODM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홍콩의 왓슨스 같은 해외 멀티브랜드숍의 자체브랜드인 PB(Private Brand)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 상품화시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기초화장품 분야는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저희는 미용 분야에 있어 그간의 경력을 인정받고, 그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관련 제품 개발 등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또 바디, 클렌징 제품 등 틈새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 창출을 위한 R&D 전략으로 치열한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의 1위와 2위 그룹의 격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그만큼 화장품 제조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은 치열하다. 2위 그룹에서 탄탄한 실력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나가는 서울화장품은 중동, 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과 그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다가올 또 다른 변화의 조류에도 지금처럼 그래왔듯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¹ OEM은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이란 뜻으로 판매회사가 제조 회사에게 상품 제작을 의뢰하고 제조회사는 상품만 만들어 납품하는 방식이며, ODM은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제조회사가 독자적 기술력이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상품을 직접 개발, 생산하여 판매회사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FTA, 이렇게 활용합니다

FTA 활용 전에 FTA 설득이 먼저입니다

한정수(서울화장품 대표 이사)

"수입 업체에 FTA를 활용하라고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서울화장품의 여러 수출국 중에서도 태국은 관세가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를 통해 받는 관세혜택이 상당하다. 서울화장품이 태국의 유통업체에 수출하는 화장품 품목이 200~300여 개, 수출액은 20~30억원이다. 이 정도 교역액을 관세로 환급받으면 1억 원 정도였다. FTA 활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수입기업이었다. "이전 원짜리 물건을 FTA를 활용해 관세를 환급 받으면 천오백 원에 살 수 있다'고 말로도 하고, 각종 서류를 보내 설득을 해도 FTA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니 협조가 되지 않았어요.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거래 업체의 의지가 없으니 진행이 어려웠죠." 2005년 꽤 일찍부터 열렬결에 FTA를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으로서는 수출업체로서의 경쟁력이 되었다고 한다. 긴 시간 수입 업체에 FTA 활용에 대해 설명했고, 결국 FTA 활용으로 관세 혜택의 '맛'을 본 업체들은 이제 먼저 FTA를 요구해오고 있다. "화장품에는 부자재와 원자재를 포함해 수십 개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증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모든 게 비용이거든요. FTA에 대한 인식이 적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협력업체는 직접 찾아가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전담 직원과 관세사 관리로 FTA 활용도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체별인증을 받아서 조금 더 수월해졌고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FTA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FTA를 넘보다 일찍 시작한 덕분에 수입 업체에게는 신뢰로 인정받고, 그것이 곧 또 다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1 완성된 제품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 서울화장품은 다양한 국내의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개발, 제작하고 있다.

* 2월호 MEET 기사 중 FTA 활용 우수사례는 FTA에 관한 가상의 기업 성공 사례를 가지고 '201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대학생의 기사로 내용 속에 언급된 명칭은 모의사업 내용의 가상 명칭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내에 모수포장과 증식 포장 등이 마련돼 있으며 우량원종을 확보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고 있다.



건강한 묘목 확보로 우리 과수산업의 힘을 기릅니다

건강한 묘목은 우수한 과수를 재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무병묘 생산,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과수산업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병묘 보급률이 낮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우량무병묘목공급 사업을 통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 박주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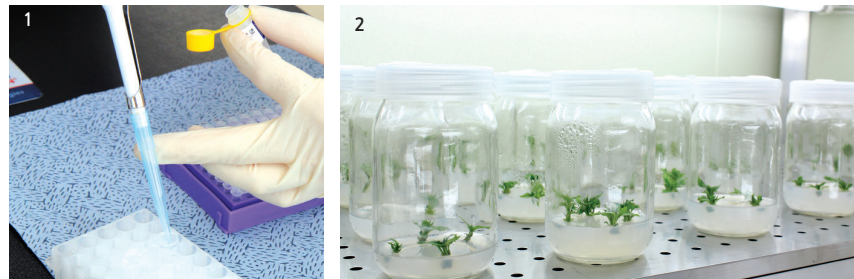
농어업인의 FTA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자유무역 확산의 이면에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약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다. FTA 대응 과정에서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었던 대표적인 지원사업과 이것을 발판삼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 FTA 지원대책사업: 우량무병묘목공급사업이란?

묘목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수확량은 무려 40%나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량원종을 통한 무병묘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우량무병묘목공급사업은 국제수준의 우량원종을 확보, 체계적으로 공급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촉진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수묘목으로 인한 당도저하,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하면 과수농가의 소득 증가는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된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FTA기금사업을 기반으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마련해 우량원종을 확보, 증식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5년 기준 품질보증묘목 총 639만주를 보급하며 본격적인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1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무병화 처리, 병해충 검정실, 원종격리재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2 무병화 처리 모습



과수산업 선진화 노력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경북 상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 12월 설립됐으며 현재 충북원예농협, 대구경북능농협, 제주감귤농협, 나주배원예농협 등 14개 과수 품목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우량무병묘목 보급, 바이러스 검정, 자체 품질보증 사업 등 생산과정은 물론 과실 전국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한 유통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2008년 준공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통해 우량무병묘목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 과수전용 유기복합비료나 조류기피제 등의 공동구매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4개 경영체, 34개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구성된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전국공동브랜드인 ‘썬플러스’는 고품질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도 매해 개최, 과수산업 도약에 주력하고 있다

품질보증묘목 639만주 보급,

피해보상적립금 모금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무병원종 관리체계를 구축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병묘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아 바이러스 감염률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과수 품목별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과와 바이러스는 크게 4종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 사과나무의 최저 감염률이 47.6%인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이에 과수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 우량묘목 생산과 보급정책이 실시됐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통해 무병묘 보급은 물론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전체 10.2ha의 부지에 무병화 처리, 병해충 검정실, 원종 격리재배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모수포 9.4ha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병원종을 통해 이를 보전, 증식해 무병 대목과 접수를 공급,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보급된 품질보증묘목은 총 639만주다. 우량무병묘목은 바이러스 요인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질 역시 향상될 수 있는 만큼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확보, 시장개방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 과수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무병묘 공급기반 확립시 연 3,601억원의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로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금 역시 적립해오고 있다.

고품질 과실전국공동브랜드 ‘썬플러스’로 차별화 성공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는 전국공동브랜드인



MINI INTERVIEW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무병묘목 보급 기반 마련 농가소득 안정·고품질 생산 ‘첫걸음’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목은 사실상 과수산업의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왔던 부분입니다. FTA 기금사업을 통해 무병묘 보급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해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무병묘목 보급이야말로 과수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고품질 생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아직까지는 도약기라 할 수 있는 만큼 규모화를 통해 보급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병묘목 보급으로 생산과정에서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고 썬플러스라는 전국공동브랜드사업을 통해 규모화, 차별화된 제품력으로 승부한다면 개방화시대에서도 국내 과실의 경쟁력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국내시장의 확대 뿐 아니라 미국이나 중동 등으로의 수출 시장 역시 점차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썬플러스’를 통한 고품질 과수 유통에도 주력하고 있다. 개별생산, 개별출하의 낙후된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고품질 안전과실브랜드를 육성해 신뢰도 높은 규격화된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개방화 시대에서 국내 과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썬플러스’는 국내 유일의 전국브랜드로 친환경기술지원단의 기술지도와 철저한 품질규격을 통해 선별된 과실만을 취급하는 만큼 유통업계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매해 개최되는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을 비롯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왔다.☺

한·미 FTA 협상이 바꾼 한국영화史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었다.

2005년 2월 첫 회의, 2006년 첫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는 2007년 타결되었지만 이후 최종 발효까진 다시 5년이 걸릴 정도로 긴 산고(産苦)를 겪었는데, 자동차와 쇠고기(광우병), 쌀과 같은 전통적 통상 난제들이 가득했던 까닭이다.

특히 한·미 FTA 스크린쿼터 협상은 한국영화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장면이다.

국제통상체제에서의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screen quota), 2017년의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가 되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스크린쿼터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아주 예민한 단어였다. 스크린쿼터란 국산 영화의 무상영제(도)로도 불리며, 한 국가의 정부가 직접 나서 주도적으로 국산 영화사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자국 내 극장에서 1년 기준 특정 일수 이상 반드시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언뜻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GATT와 WTO의 철학, 특히 수입 상품이나 자국 상품,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상품의 경우는 GATT 제3조, 서비스의 경우는 GATS 제17조 - 의 위반으로 보이지만 영화라는 매체가 갖는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심본 고려한 GATT는 제3조10항과 이어지는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Cinematograph Films)'에서 스크린쿼터를 예외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와 대한민국

1927년 영국의 영화헌장(Cinematograph Films Act 1927)에서 기원한 스크린쿼터는 우리나라의 경우, 1934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제정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¹ 이후 영화법 개정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1966년에 최근까지의 모습과 비슷한 스크린쿼터제가 <영화법>에 본격 도입되었으니 스크린쿼터의 긴 역사가 실로 놀랄 따름이다.

146일에서 73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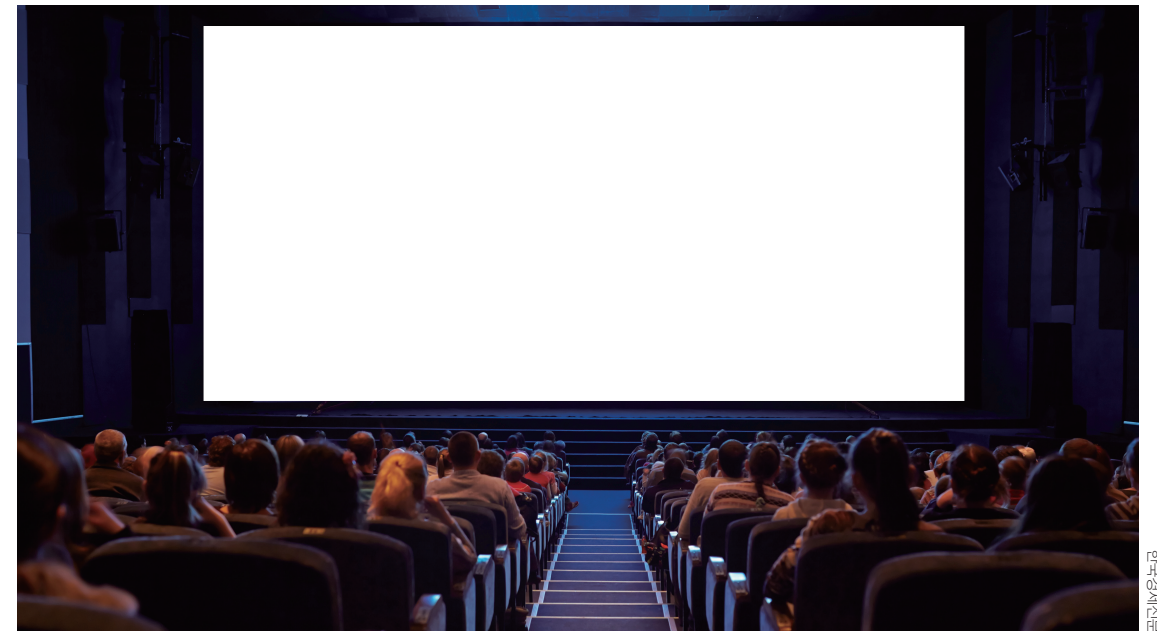
앞서 말한 GATT 제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의 (d)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법문화되어있다: "스크린쿼터는 제한, 자유화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의 대상이 된다."² 한·미 FTA 협상 당시 이례적으로 쟁점화 된 스크린쿼터 축소협상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일수는 연간 상영일수의 40%인 146일. 당시 우리와 함께 스크린쿼터제를 유지, 운용하던 몇몇 국가들 - 스페인(73~91일), 브라질(49일), 그리스(28일) - 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미 FTA에 앞서 IMF 위기를 타개하고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1998년의 한·미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에서 한 차례 난관을 겪다 결국 BIT의 좌초와 함께 미결로 남았던 우리의 스크린쿼터는 당시 영화인들의 식발투쟁으로 지금도 많이 회자된다.

잊힐 뻔했던 스크린쿼터가 다시금 협상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쥔릭(Robert B. Zoellick) 대표가 한·미 FTA 협상 출범도 전에 주요 현안의 하나로 축소를 요구하던 2004년도다. 본격적인 공식 협상이 시작된 시기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 동시에 그만큼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미국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1998년 한·미 BIT 좌초라는 쓰라린 기억을 가진 미국은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한·미 FTA 협상을 위한 최대 선결조건(pre-condition)의 하나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맞서 위에서 언급한 영화인들의 투쟁이 그대로 재연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응이었다.

물론 한국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서나 공감대 등을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정답은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영화사에서 스크린쿼터제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으며, 우리 영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한국경제신문

고려하면 가령 스크린쿼터제의 역할이 축소되어도 국내 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가 여전한 저력을 발휘, 점유율 측면에서 수입영화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과 자신감은 자명했다. 하지만 해당 산업군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과 이에 따른 민심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영화산업은 이미 스크린쿼터 등의 제도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상태였고 - 당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에 이미 60% 달성 - 그렇다고 미국의 요청 철회를 설득할 정도의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시장점유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웠다.

한·미 FTA 협상 출범에 사활을 건 우리 정부는 장고 끝에 2006년 1월 초 "같은 해 7월 1일자로 국내 스크린쿼터를 기존 146일의 절반 수준인 73일로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이어 바로 2월에 FTA 협상 출범을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이후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은 없을 것임을 못박아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국내대책차원에서 한국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영화산

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약속했다.

스크린쿼터, 한국 영화에 새로운 동기 부여

긴 역사를 지닌 스크린쿼터제를 한·미 FTA 협상 자체도 아닌 단순 출범을 목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한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은 국내 영화 산업계에 온갖 악재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그 안에 점진적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경제적 변영을 이루는 외국영화사의 희망만이 남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다. 문화강국 프랑스는 이미 스크린쿼터제도가 거의 사문화된 상태인 반면, 그 취지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엄격한 검열과 쿼터제 운용으로 외국 영화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산영화 위축을 우려한 태국에서도 스크린쿼터제 실행을 요구하는 등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정답은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영화사에 스크린쿼터제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으며, 우리 영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보다 심해진 수입 영화와의 경쟁 속에 한국영화는 무한한 발전을 거듭했고 당시 그토록 지키고자했던 우리 문화를 해외에 수출, 배급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한·미 FTA 스크린쿼터 협상은 미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 발효시킨 대외 경제적 관점, 그리고 국내 영화산업 번영이라는 대내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윈-윈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해당 시행세칙에 따라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비율은 3/4, 2/3, 1/2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²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d) Screen quotas shall be subject to negotiation for their limitation, liberalization or elimination.

중국 내 제품 품질 관련 샘플링 조사 강화

2017년 1월 18일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국내산 비데 및 공기청정기 등 수출제품의 중국 통관검사 무더기 불합격 판정 이슈에 대해 중국 수출입 관련 해관 및 중국질검총국(AQSIQ)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해당 발표는 중국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조례에 의거, 중국정부가 비데제품 중 2016년 한 해 동안 수입제품통관검사 및 유통분야 제품에 대해 샘플링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국가질량감독총국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중국 내 제품들의 임의 샘플링 조사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방안과 목록을 발표했다. 2015년 《국무원 판공청 임의 샘플링조사 규범- 사중, 사후 감독의 통지》 및 국무원 2016년 총국에서 인쇄하여 배포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랜덤 표본조사 시행방법》과 《국무원의 2016년 업무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 개혁 업무 요점의 인쇄와 배포에 관한 통지》의 목표 실행을 위해 각 직속 검사검역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품질기술 감독국(시장 감독 관리 부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중국의 각 관련 부서, 정보센터, 중국섬유검사국에 《품질감독 검사검역 랜덤 표본조사 시행방법》과 《품질감독 검사검역 랜덤 표본조사 항목 리스트》를 하달, 중국 내 제품 품질관련 샘플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CCC강제인증 대상 제품, 에너지 효율 관련 제품, 동·식물, 사료첨가제, 목재 관련 제품, 매년 4월 경 발표하는 수출입제품 특별검사 대상 관련 제품을 수출하거나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이 방안 및 목록을 잘 살펴 2017년부터 강화될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 질검총국의 《품질감독 검사검역 랜덤 표본조사 시행방법》과 《품질감독 검사검역 랜덤표본조사 항목 리스트》의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2016.10.24)

2016년 수입비데 감독 조사 현황에 대한

중국질검총국의 통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실시조례와 ‘수출입상품감독조사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질검총국(AQSIQ) 검사과는 유관직속검사검역기관을 조직하여 수입비데의 품질 안전에 대해 감독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통보했다.

검사 기본 현황

전국 20개 직속수출입검사검역국에서 총 106개 수입비데를 샘플링 검사했고, 국가강제표준에 따라 엄격히 검사한 결과 불합격 47개, 불합격률 44.3%이었으며, Novita(kohler), Quoss, 삼성 등 여러 브랜드가 포함되었다. 주요 불합격 원인은 안전표시 불합격, 전기안전 불합격 등으로 2015년과 비교 시, 수입 비데 불합격 점검률은 11.7%p 하락했다.

검사 주요 특징

첫째, 검사가 주로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 실시되었다. 이번 검사는 동부 연안 지역 검사검역기관이 수입항구, 수입 전자상거래, 유통분야 등 단계에서 총 87개를 검사하여, 전체 검사 중 82.1%를 차지했다. 둘째, 많은 브랜드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검사는 Novita, QUOSS, Samsung, HSPA, IZEN, Cleansense 등 40여 개 브랜드를 검사했다. 검사수량으로 상위 10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69개 제품을 검사했으며, 전체의 65.1%를 차지했다. 셋째, 검사결과 원산지가 상대적으로 단일하다. 이번 검사는 유관 직속검사검역국에서 무작위 샘플링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무역을 통해 수입된 비데의 주요원산지는 한국이었다.

검사결과 분석

불합격현황

이번 검사에서는 표시 및 설명, 전기가 흐르는 부품의 접촉 방호, 입력전력 및 전류, 발열, 작동온도에서의 전류누출 및 전기강도, 내습(습도를 견디는 정도), 기계 강도, 구조, 내부 배선, 외부 도선용 압착단자, 접지조치, 나사 및 연결 등 지표를 중점검사 하였다. 검사 시험 결과 불합격은 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하나의 제품이 동시에 여러 불합격 유형에



해당할 수 있음)

1. 전기안전 불합격. 33개가 전기안전류 표시 불합격이었으며, 전체 불합격의 70.2% 차지
2. 안전표시 불합격. 38개가 안전표시 불합격으로, 전체의 80.9% 차지
3. 화물증서와 불일치 및 일반 설명 불합격이 15개로 전체 31.9% 차지

불합격 항목 분석

표시 및 설명 불합격: 주로 중문설명서 미비, 사용설명서 중 '아동이 기기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됨.'이라는 내용 미표시, 제조자명 또는 책임판매자의 명칭, 상표 또는 표지 표시에 중문 표기가 없었다. **입력전력 불합격:** 일부 제품은 실측한 입력전력이 정격출력보다 낮아서, 최대편차가 -20%를 초과했으며, 표기전력(nominal values)보다 실측치가 더 높았다. **전원연결 및 외부코드 불합격:** 주로 제품 전원플러그가 중국제식(포멧)이 아니어서 접지보호 불가능하고, 전원코드 고정 장치가 표준 장력작용에서 떨어져나갔다. **접지조치 불합격:** 주로 전원선 고정 장치와 전원선 압착단자 사이의 도선길이 불합격으로 전원선이 풀려나간 후 접지도선이 전류도선 (current-carrying wire) 앞에서 팽팽해졌다. 물통 상부와 온수 열단락기의 전열금속판부위에 보호접지 조치가 없으며 정상 작동 시 물통의 물과 전열금속판이 접촉되나 전열금속판에서 온수열 단락기까지의 절연방호가 단순히 기본절연 요건만을 만족했다. **비정상적 작동사항 불합격:** 주로 전기쾌속변환 (Electrical Fast Transient) 시험 시 분문 노출 신축기기가 작동했다.

작업 요구사항

샘플링 검사에서 발견 된 불합격 상품에 대해 각 직속 출입국 검사검역국은 엄격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첫째, 불합격 상품 수입상이 불합격 상황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품질 상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샘플링 검사 결과를 지방 정부와 유관 부처에 통보하고, 유관 정부 부처는 수출입 상품의 품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관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참고하도록 제공한다. 셋째, 샘플링 검사 결과를 적시에 발표하여 철저하게 소비자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한다. 각 직속수출입검험검역국은 품질검사총국의 무작위 샘플링 검사 실시방법 및 무작위 샘플링 목록 요구사항을 근거하여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샘플링 규칙을 적절하게 제정하며, 항구 단계에서의 샘플링 업무 강화한다. 또 샘플링 검사 항목 및 표준을 개선하여, 제품 성능 지표 중점 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국산 비데 및 공기청정기에 대한 통관 불합격 보도와 관련, 해당 제품은 '16년도 4월에 사전공고한 추가검험 검역 목록 내 포함된 제품으로 특별검험을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이 난 것으로 보이며 사드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관세 장벽 발전방향 및 제언

FTA를 체결했음에도 수출이 쪼그라들었다는 점은 현지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중국 일본도의 무역정책에서 수출 노선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수출 품목도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 움직임에 맞춰 소비자·서비스 등으로 바뀌어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소비재는 중국어 라벨 및 위생검역 등의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은 통관 및 심사 기준 변경 등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화장품은 중국 현지기업들이 제품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해 국산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한류 열풍이 일고 있고 내수 시장이 큰 인도네시아·베트남 등지로 판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서비스·투자 분야이므로 방송과 K-POP 등 문화산업과 함께 IT 서비스 등 중국이 미비한 분야의 수출 확대 및 판로를 개척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더욱 도약하는 단계가 되길 기대해본다.●

글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손해배상금액 선고

중국이든 한국이든 특허권자의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손해를 적절히 배상해 주는 것이다.

중국은 2014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고급인민법원 급의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였는데, 최근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2014년 설립 이래 가장 큰 배상 금액인 한화 85억원에 해당하는 침해 배상 금액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특허법에 따른 침해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대부분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 한국 특허법 개정에서 고의적 침해 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 특허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5년부터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중국 내 자국 기업들 간 특허권 침해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 중국 Watchdata社(北京握奇数据系统有限公司, www.watchdata.com.cn)는 중국 신청 번호 제 200510105502.1호, '물리인증 방법 및 그 전자장치'(一种物理认证方法及一种电子装置)에 관한 발명 전리권(이하 '본 특허권'이라고 함)을 가진 권리자이다. 피고 Hengbao社(恒宝股份有限公司)는 본 특허권을 침해하는 USB 메

모리 카드를 제작하여 수십 개 중국 은행의 온라인 금융 거래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도록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본 특허권을 침해하는 USB 메모리 카드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2015년 2월 26일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특허권은 컴퓨터와 통신 보안 인증에 관한 방법 및 그 전자 장치 발명으로, 물리적 인증 수단으로 검증된 사용자가 보안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된 거래 또는 증명에 의하여 데이터의 읽기/쓰기 동작을 가능하게 하여, 네트워크 거래에서 신원 인증 및 거래 인증의 문제 및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특허권은 원고의 거래 은행에서 배포되는 USB 메모리 카드 형태로 제작되었고, 피고 역시 12개의 중국 거래 은행에 침해 제품인 USB 메모리 카드를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쟁점 및 그에 대한 법원 판단

본 사건에서 원고의 본 특허권을 피고가 침해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 없이 피고의 USB 메모리 카드 및 그 사용 방법은 본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포함되며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다만, 본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본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측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특히 중국 법원이 당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높게 산정한 것과 함께 구체적인 그 손해 및 비용의 산정 방식이 관심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배상금액은 중국 법원이 지금까지 산정한 금액 중 3번째로 많았고,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 이래로 가장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선고한 사건이 되었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64조는 원고에게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중국 「특허법」 제65조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자의 손해 배상액은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피고가 얻은 이익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침해로 인하여 입었을 원고의 손해액을 가정하여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하거나,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이익액을 입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피고 정보도 필요하면서 일반적으로 금액이 낮은 합리적인 로열티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중국 「민사소송법」 제64제에는 원고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법원은 당시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2015. 1. 사법해석인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의 제20조에는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침해제품의 판매 총 수량에 합리적인 이윤 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2016. 1. 사법해석인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사 시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2(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의 제27조에는 특허권자가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권리자가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경우 특허권자가 초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침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 금액 입증에 위한 구체적 증명

원고인 Watchdata社は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판매한 수량에 합리적인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거래 은행과 거래한 특허 제품의 가격, 전체 총 이익비율, 제품 단위 이익액을 제시하였고, 또한 본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다른 시장 경쟁사의 유사 제품 가격, 전체 총 이익비율, 제품 단위 이익액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이익액을 10위안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원

고는 피고가 판매한 침해제품의 수량에 대하여 알 수 없어 법원에 직접적인 증거 조사를 요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드려 시중 은행들에 대하여 피고가 판매한 침해제품 수량에 대한 거래 정보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12개 은행에 침해제품 4,814,200개를 판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입은 침해 손해 배상액을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4,814,200 개에 한 개당 합리적인 이익액인 10위안을 곱한 4,814만 위안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얻은 추가적인 3개의 은행에 대한 거래정보를 피고가 제출하도록 법원에게 요청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피고가 끝내 이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의 비협조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을 적용하고 통상적인 업계 기준을 고려하여 3개의 추가적인 은행에 대한 원고의 손해액 85만 위안을 추가로 더 인정하였다. 또한,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극히 이례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비용으로 100만 위안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법원이 변호사 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간당 지불 비용 방식으로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 및 증거 수집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보통의 경우 중국법원은 소송비용으로 5~20만 위안 정도를 인정하여 왔다.

중국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전략 전면적 재수정 필요해

2014년 이후 중국은 중국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을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중국 내 지적재산권의 상소심을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상소법원의 도입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본 사건은 중국 국내 기업들 간의 사건이기에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선부른 예측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이미 외국 기업들 간의 경쟁시장이 되었고, 한국의 중국과의 무역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은 다른 외국보다 최근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와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들에 더욱더 주목하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과거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법원의 차별적인 판결은 옛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의 중국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원산지증명서 발급만큼 사후 검증을 위한 관리 중요해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총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지금도 중미, RCEP 등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FTA 시대가 도래한 지 어느 덧 14년 차에 이르면서 FTA 활용이 일상이 된 기업 담당자의 FTA 관련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FTA가 어렵기만 할 것이므로, 지난 호에 이어 FTA 초보자를 위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I. 사전준비 단계

- ① FTA 협정국 확인하기
- ② HS code(품목분류) 확인하기
- ③ 양허품목 여부 및 양허세율 확인하기
- ④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하기

II. 서류준비 단계

- ⑤ 원산지증빙서류 준비하기
- ⑥ 원산지 판정하기
-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하기

III. 사후관리 단계

- ⑧ 서류보관 및 관리하기
- ⑨ 사후검증 대비하기

FTA 활용에 있어 9가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I. 사전준비단계 II. 서류준비단계 III.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FTA 활용하기: II. 서류준비단계

가. 원산지증빙서류(판정서류) 준비하기

원산지 증빙서류란 앞서 확인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어 협정에서 정하는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협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이러한 증빙(판정)서류는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별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준비해야 될 증빙서류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산지국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자재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원산지 증빙서류로는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원부자재 구매 입증서류 등과 이를 근거로 작성된 원산지소명서 등이 있다.

나. 원산지 판정하기

일반적으로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물품이란, 원산지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대상 물품의 생산·제조·가공이 이루어지거나, 실질적인 공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물품을 뜻한다. 즉, 원산지 판정은 대상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의 HS CODE·가격·원산지, 제조과정, 원가계산서 등)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 판정은 하드카피 또는 소프트카피를 통해 수기로도 가능하다. 웹 기반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FTA원산지관리 시스템의 활용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원산지 판정 절차를 통해 협정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류를 발급한다.

다.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하기

FTA 원산지증명서란 대상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에 충족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수입국

에서 수입통관 시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각 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작성 및 발급되어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양식 등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크게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된다. 자율발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나,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만 인정된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구분한 것이다.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발급방식	자율	기관	자율	기관	기관	자율	자율	자율
구분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발급방식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기관	기관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대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FTA 활용하기: III. 사후관리단계

가. 서류보관 및 관리하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별 및 물품별로 원산지 근거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보관해야 하는 근거서류는 FTA 활용 물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의 조달, 제품 생산, 수출판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원산지 판정이력 및 증명서 발급이력 등의 일괄 관리도 가능하다.

나. 사후검증 대비(대응)하기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FTA 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는 걸까?

흔히 FTA가 적용되면 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FTA에서 면세 대상은 관세에 국한되며 물품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수입국 현지의 기타 내국세는 모두 그대로 부과된다.

A씨는 해외직구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스위스 고급 손목시계를 구매했는데, 스위스는 한·EFTA 체결대상국이므로 FTA를 적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가 애를 먹었다. FTA를 적용받아 통관되었음에도 세금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확인 결과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발생했다. A씨는 이러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기타 내국세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꼭 수출입을 하지 않더라도 해외직구만 해도 마주하게 되는 것이 각종 세금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어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개념이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비세 등의 내국세가 더 부과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내국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 등은 특별한 대상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두 가지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관세: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는 보통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단어 그대로 과세를 하기 위한 기준 금액, 즉 물건의 총 구매비용으로 보면 된다. 과세가격은 물품의 기본 가격에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데, 보통 **물품가격 + 현지 세금(있는 경우) + 현지 내륙운반비 + 보험료 + 해외운송비(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 가격은 외화이므로 과세가격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변경한다. 사실, 환율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계산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위해 관세청에서 전주의 평균 환율을 주단위로 갱신해서 고시하고 있다. 이 환율을 고시환율이라고 한다.(2017년 2월 20일 현재 고시환율은 USD 1156.71원, EUR 1228.06원이다.) 여기서 관세는 물품(HS 코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8% 세율이 부과되지만 품목, 원산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내국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미가공식료품 등 일부 면세대상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물품에 부과되며,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에도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로 계산한다.

개별소비세: 과거 특별소비세라고 불렀던 조세로, 주로 사치품에 부과된다. 손목시계 하나가 수입되더라도 그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향수와 게임기 등 오락용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배기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달리 부과된다.

주세: 술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주세는 ‘과세가격 + 관세’에 주세율을 곱하면 된다. 관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 결국 관세를 많이 내면 주세도 올라간다. 국가마다 술에 부과하는 세금 비율 또한 다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 등이 수입될 때 부과된다. ‘리터당 475원’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교육세: 교육세는 종속적인 조세다. 앞에서 설명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세액의 일정률이 교육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맥주가 수입되는 경우 주세가 부과되는데, 그 주세액의 30%가 교육세로 따라 붙는다. 외국의 경우에도 ‘exercise tax’ 같은 항목으로 술에 특별한 세금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투전기, 수렵용 총포류, 오락용 사행기구, 그밖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고급 모피와 고급가구에 대해 부과된다.

관세 초보자를 위한 해외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 계산법

1.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장 일반적인 경우)

예시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
계산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 100,000 × 8% = 8,000원 - 부가세: (100,000 + 8,000) × 10% = 10,800원
총 납부세액	8,000 + 10,800 = 18,800원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경우 일반 관세 대신에 FTA 특혜세율을 넣고 계산하면 된다.

예시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율 8%, 한·미 FTA 3% , 부가가치세 10%
계산	- FTA 관세 : 100,000 × 3% = 3,000원 - 부가세 (100,000 + 3,000) × 10% = 10,300
총 납부세액	3,000 + 10,300 = 13,300원

이렇듯 FTA를 활용하면 5,5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예시	- 과세가격: 100,000원 - 관세율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계산	- 관세: 100,000 × 8% = 8,000원 - 개별소비세: (100,000 + 8,000) × 5% = 5,400 - 교육세: 5,400 × 30% = 1,620원 (개별소비세의 30% 부과) - 부가세: (100,000 + 8,000 + 5,400 + 1,620) × 10% = 11,500
총 납부세액	8,000 + 5,400 + 1,620 + 11,500 = 26,520원

기타 내국세가 부과되는 경우 총 부담하는 세금은 결코 싸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FTA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A씨의 사례를 다시 계산해보자.

예시	- 과세가격 1,000만원 - 관세율8%, 한·EFTA FTA 0% 개별소비세 20%(200만원 초과),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계산	- 관세: 1,000 × 8% = 80만원 - 개별소비세: (1,000만원 + 80만원 - 200만원) × 20% = 176만원* - 교육세: 176만원 × 30% = 약 53만원 - 부가세: (1,000만원 + 80만원 + 176만원 + 53만원) × 10% = 약 131만원	- FTA 관세: 1,000 × 0% = 0원 - 개별소비세: (1,000만원 - 200만원) × 20% = 160만원* - 교육세: 160만원 × 30% = 48만원 - 부가세: (1,000만원 + 160만원 + 48만원) × 10% = 약 121만원
총 납부세액	80만원 + 176만원 + 53원 + 약 131만원 = 440만원	160만원 + 48원 + 약 121만원 = 329만원

* 해당 200만원이 초과하는 시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물품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

A씨는 329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FTA의 활용을 통해 111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FTA
NEWS산업부장관, 싱가포르, 필리핀과 통상 관련 회의 진행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 및 RCEP 협상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13일 마닐라에서 라몬 로페즈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제1차 한·필리핀 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했다.

산업부 장관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여, 한·싱 통상장관회담, 제1차 한·필 경제협력공동위, 한·필 에너지장관회담, ADB총재와 회담을 개최했다. 미국의 TPP 탈퇴로 무역자유화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ASEAN FTA 이행위원회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싱 통상장관회담 및 2017년 RCEP 장관회의 의장국인 필리핀과 제1차 한·필 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하고,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RCEP 협상 등

역내 무역자유화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필 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수빅 태양광발전소(2천만 달러) 개발사업을 사실상 수주하고 금년 상반기중 착공기로 합의하였으며, 수알 석탄화력발전소(18억 달러) 개발사업을 필리핀이 국가 중요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련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¹ 또한 한·싱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싱·말 고속철(150억 달러) 사업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¹ 태양광발전소
12MW(2천만불),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BOO)
수알 석탄화력발전소
900MW(18억불),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BOO)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2차 개선 협상 개최

상품·서비스 양허 및 원산지 기준 개선 관련 시장개방 협상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2차 개선협상이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인도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국장이 수석대표였으며,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에서 1차 개선협상을 개최하고, 상품·원산지·서비스 분야 관련 상호 기본입장을 논의한 바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 논의를 토대로, 상품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선, 서비스 추가 자유화 관련 시장접근 협상을 본격 진행했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약 7% 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대 유망시장인 인도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부는 동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가속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중미 6개국 FTA, 법률검토회의 개최
협상 실질 타결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실시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법률검토(legalscrubbing) 회의가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권혁우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장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 중미측은 중미 6개국 통상담당국장(협상차석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률검토팀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11월 16일 한·중미 FTA 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하고, 금년 상반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법률검토, 국문번역, 가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미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 24개 챕터 전체 협정문(texts)에 법률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문안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² 과테말라의 경우 시장접근, 원산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실질타결

이달의 FTA 행사 및 해외 전시 정보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파리 인쇄 디자인 기술 박람회

일시 : 2017. 05. 30 ~ 2017. 06. 01

개최 국가 : 프랑스(파리)

전시장 : Porte de Versailles

전시분야 : 프린팅, 네트워크 및 통신, 컴퓨터 하드웨어, 인쇄 등

홈페이지 : www.comexposium.fr

이메일 : f.courtenay@infoexpo.fr



독일 뉴렌버그

국제 자동차엔지니어링 박람회

일시 : 2017. 05. 30 ~ 2017.05.31

장소 : 독일(뉴렌버그)

전시장 : Messezentrum Nuernberg

전시 품목 : Building Parts, Components, Design Engineering, Joints/seam Technology, Materials Technology 등

홈페이지 : www.vincentz.net

이메일 : info@vincentz.net, aee@nuernbergmesse.de



싱가포르 소비재 전자제품 박람회

일시 : 2017. 05. 26 ~ 2017. 05. 28

개최 국가 : 싱가포르

전시장 : Suntec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전시분야 : 소비재 가전제품 일체

홈페이지 : www.exhibitsinc.com.sg

이메일 : sales@exhibitsinc.com.sg



알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FTA〉가 2017년부터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메일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knsn@hankyung.com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함께하는FTA〉를 보신 소감은?
- 〈함께하는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 〈함께하는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knsn@hankyung.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60-4810

무역인의 고민해결사

트레이드내비

tradenavi.or.kr

TradeNAVI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구축·서비스 중인
국가무역정보포털입니다.

01

통관정보

전 세계 주요 49개국의 관세 및 수입제도 등 수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
- 관세, 비관세장벽(인증, 규제 등), 무역통계, FTA정보

02

해외마케팅
정보

161개 재외공관, 122개 무역관, 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수집되는 생생 해외시장정보
무역협회, 중진공, KOTRA, 무보공이 제공하는 약 68만건의 해외기업정보
tradeKorea, buyKorea, Gobizkorea, EC21에서 통합 수집된 해외오피정보
- 해외시장동향, 해외기업정보, 해외오피정보

03

지원정보

국내 48개 무역지원기관에서 수집한 각종 수출지원제도의 연간계획을 일자별로
한눈에 제공
-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 무역정보 안내지도

04

무역애로
해소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의사항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무역애로정보
- 무역실무 상담, FTA 상담, 전문가 상담, 애로사례 공유



수출이 궁금해?

1380

수출안내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든,
FTA 활용부 수출 및 해외투자정보,
수출거래지원, 금융지원체계 구축등
수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